



한국 대학 국제화의 바람직한 방향

현재 전 세계 각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49%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다. 이 지역의 학생들은 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학들보다 2배 이상으로 비싼 등록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영국 또는 호주 등 영어권 국가의 대학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고 또 수학하고 있다. 국내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학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대학 간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 수 | 고려대학교 총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튀빙겐대학교, 마인츠대학교, 하버드로스쿨, 뮌헨 막스-플랑크 인스티튜트(Muenchen Max-Planck Institute), 위스콘신 메디슨로스쿨, 와세다로스쿨 교환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국가경쟁력연구원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독일학회 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총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상법총칙」, 「경제법」, 「회사법」 등 20여 편의 저서와 300여 편의 논문이 있다.

한국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 유학하는 외국 학생들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학생 국적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인구대비 유학생 수 및 절대 숫자에서도 가장 많은 수의 한국 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고등학생이 선택하는 대학의 폭이 한국 내에 한정되던 것에서 점차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유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영어권 대학들에 더하여 중국의 대학에 직접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대학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고등교육 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어 있음을 실감하고 최근 국제화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한국 대학은 국제 언어인 영어와 한국어로 유입되는 유학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어가 캠퍼스 내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어강의가 상당한 비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으로 향하는 유학지원자들을 국내에 머물도록 유인하고 동시에 해외대학 학생들의 국내대학에 대한 지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중국어 강좌 및 중국어로 진행하

는 교양 및 전공강좌의 채택 및 확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인력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대학에서 강의나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영어나 중국어 등 제2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국으로 유학 오고자 하는 외국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탁월한 수준의 행정직원을 양성하는 정책적 노력을 함으로써 대학의 국제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 국제 업무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화된 직원을 우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이 국제화 추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관심을 갖게 된다.

셋째, 해외대학과 다양한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Erasmus 프로그램과 같은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구축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해 5월 'Science'誌에 박사과정 학생 신분으로 논문을 게재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은 고려대 한래희 씨는 지진연구와 관련하여, 우수한 시설이 있는 일본 교토대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다. 학생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 교환 학생들의 유입을 지원하는 실용적인 노력을 통해 주요대학 교환학생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한국 대학생들이 영미권의 해외대학으로 나가고자 하는 수요에 비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고자 하는 영미권 대학생들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 번이라도 한국 대학을 방문하는 외국 학생들이 한국이 공부하기 편안한 환경이라는 인상을 갖고 돌아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학술교류협정 후 몇 년 내에 교류가 단절되지 않는 지름길이다.

넷째, 아시아태평양국제교육협회(APAIE), 국제교육자협회(NAFSA), 유럽국제교육협회(EAIE) 등 국제 교류와 관련된 국제교육기구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해외 우수한 대학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해마다 개최되는 APAIE 컨퍼런스 및 전시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과 연구에서 협력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1869년 하버드 대학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고, 1876년 존스홉킨스 대학의 설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학은 독일의 훔볼트 대학이다. 그러나 20세기에 하버드대와 존스홉킨스대는 역할모델인 훔볼트 대학을 뛰어 넘어 세계 최고의 명성을 구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미국의 우수한 대학을 벤치마킹하며 점차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다. 21세기 아시아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대학 국제화의 적절한 방향 설정은 이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세계무대에서 명성을 높이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훔볼트 대학을 넘어섰던 미국의 대학들처럼 한국 대학들도 미국의 대학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하리라 기대해 본다.